

지역 소식통

정읍시, 국제 · 지방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정읍시는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을 맞이해 정읍시청 종합민원실에서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9년까지 국제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지방세도 일괄 신고하였으나,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독자 신고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시는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와 지방세 합동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이번 합동신고센터 설치로 납세자가 세무서의 시정을 별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고 두 곳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시기 악취관리 강화

부안군은 영농철 미부숙 퇴·액비 살포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악취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부숙도 기준 및 적정 살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미부숙 퇴·액비 살포와 불법아직 및 빗치 등 퇴·액비 집중 살포시기 악취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가축분뇨 보관상태 및 부숙도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다.

또 축산농가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가축분뇨법에 따른 퇴비 부숙도 기준 및 퇴비 살포시 준수사항 등을 집중 교육·홍보하고 있으며 악취방제단을 통해 악취저감제 살포 등 방제작업을 실시해 미부숙 퇴·액비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규모 능력은 6개월에 한번, 신고 규모 능력은 1년에 한 번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안=김석진 기자

# '관절연골엔 구절초' 출시

### 정읍산 구절초추출물 활용 건강기능식품... 통증 개선 효과 '특목'

정읍시의 시화이자 대표 향토자원인 정읍 구절초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관절연골엔 구절초'가 출시됐다.

'관절연골엔 구절초'는 관절과 연골 건강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구절초 추출 성분을 기반으로 출시한 개별 인장형(기존에 없던 재료를 제조사가 연구·개발한 것) 건강기능식품이다.



28일 정읍시청에서 '관절연골엔 구절초' 제품 전달식을 갖고 제품출시·판매를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약품 전문기업인 GC녹십자웰빙이 구절초추출물을 활용한 무릎관절염 통증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2018년부터 연구·개발해 만든 제품이다.

정읍에서 생산하는 구절초를 원료로 하며,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신규 식품 원료(NDI) 승인을 획득했다.

관련해 시는 GC녹십자웰빙과 지난

30의 납품 공급계약 체결을 이를 수 있도록 중개역할을 하며, 농가소득 확대와 구절초 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최재용 정읍시장 권한대행은 "지역의 대표 향토자원인 구절초의 생산성 증대와 품질 유지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구절초 산업육성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C녹십자웰빙 관계자는 "오랜 기간 연구 끝에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인 만큼 철저한 홍보 판매 전략으로 회사와 정읍시 생산 농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지역 내 구절초 생산업체와 GC녹십자웰빙이 건초



정읍시가 (사)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정읍시지부(이하 옥외광고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옥외광고 문화 선진화와 불법 광고물 양성화에 나선다.

## '도시미관 저해 불법 광고 근절'

### 정읍시-옥외광고협회, 건전한 광고 문화 조성 위한 업무협약

정읍시가 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정읍시지부(이하 옥외광고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옥외광고 문화 선진화와 불법 광고물 양성화에 나선다.

시는 지난 28일 정읍시청에서 (사)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정읍시지부와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운영에 대해 민간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최재용 정읍시장 권한대행과 송기선 옥외광고협회 정읍시지부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옥외광고협회는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2년간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위탁 관리하게 된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태풍과 호우, 눈사태 등의 악천후 발생 시 옥외광고물 시설물 피해 사전 예방과 도시미관

을 저해하는 옥외광고물 정비는 물론 시설물 안전 점검 시 장비와 인력 지원을 협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와 협동으로 불법 광고물 근절과 양성화를 위해 일제 단속 활동을 펼치는 등 쾌적한 도시미관과 건전한 광고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하고 대형화되는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는 물론, 한정된 행정력으로 인한 업무 부담과 민원 발생 부분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광고협회와 협력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고, 현수막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군 '전북도 사회조사 조작 어불성설'

### 통계전문대행기관 주관 행정통계 군 개입 못해

고창지역 내 모 주간지 보도 관련, 고창군은 "전라북도 사회조사는 전북도청이 실시하고, 통계전문대행기관에서 주관하고 있다"며 "조작"이나 "오염"됐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주간지에서도 용역을 추진한 용역기관과 통계청에도 교차 검증을 통해 분석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받았음에도 자의적 판단과 억측을 기정사실화하여 보도했다.

고창군은 관련 기사를 명백한 허위

사실로 규정하고 정정보도 요청과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법적 제재를 검토할 방침이다.

고창군은 "철저한 사실검증을 거치지 않은 기사 탓에 그동안 현장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공직자들에게 미움의 큰 상처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에 대한 언론의 비판과 감시는 존중되어야 하나, 선거철 특정세력의 여론몰이를 위해 의도를 가

진 악의적인 기사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라북도는 매년 도민들의 생활수준, 사회상태의 종합측정을 위해 전문 통계수행기관에 의뢰해 사회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고창군은 '삶만족도' 항목에서 2년 연속(2021·2020) 전북 14개 시·군 중 제일 높았다.

이에 해당 주간지는 해당 결과값이 조작되고 오염된 결과라 단정 지으며, 이를 고창군이 기획하고 관리해 만들어 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유기상 고창군수 예비후보, 심덕섭 후보 TV토론회 불참 유감 전해

유기상 고창군수 예비후보는 심덕섭 민주당 후보에게 TV토론회 참석을 촉구하였다. 유기상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한 TV방송사에서 지난 4월 25일 고창군수 유력후보들을 대상으로 정책토론회를 제안하였고, 유 예비후보는 적극적인 수락의사를 밝혔으나, 말로만 유권자 알권리를 주장하는 심덕섭 후보의 불참 통보로 무산되어 심히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군수 후보자는 4년간 최소한 자신이 어떻게 고창군을 설계하고 이끌어 갈 것인지를 정책공약과 비전으로 군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며 "고창군민의 권리를 위임받는 군수 후보로 나서면서 유권자가 후보자를 평가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것은 공직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고 비판하였다.

계속해서 심덕섭 예비후보에 대해 "정책선거, 국민 알권리 운운하면서 무엇이 무서워 토론회 참여를 회피하고, 후보 홀집네기, 네거티브를 국민 알권리로 강변하는지 궁금하다"며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효과

적인 방법인 정책토론회에 불참하는 것은 유권자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다"면서 "어떤 경우도 용납될 수 없다"고 토론회 참석을 재차 요구하였다.

한편 심덕섭 고창군수 예비후보는 작년 11월 1일 JTV방송 등에서 주최한 '불법 선거 현수막 금지 협약식'에도 동참을 하지 않아 지역에서는 심덕섭 예비후보에 대해서 '친환경 선거'도 불참 정책 토론회까지 거부한 것이 사실이라면 후보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검증 없이 정당만을 보고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는 것은 군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무성하다.

/고창=김영식 기자

## 부안군,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부안군(2017년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실시한 2022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 됐다.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는 성과평가와 환류체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평생학습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후 만 4년이 경과된 147개 도시를 대상으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특별시·광역시(2020년), 도 산하 시(2021년), 도 산하 군 순으로 3년을 주기로 순환평가를 진행한다.

전국 평생학습도시 44개 군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이번 재지정평가는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평생학습 추진체계, 프로그램 및 동아리 등 사

업운영 사회적 약자 배려 및 특성화 사례 등 사업성과를 서면 및 대면평가를 거쳐 종합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했다.군은 추진체계에서 증장기 발전계획 수립·온라인 비대면 교육 운영을 위한 환경개선 노력과 평생학습 네트워크 교류 및 우수사례 공유 등 전담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 평생학습관 건립 추진 및 군내 다양한 시설을 평생학습 공간으로 활용한 점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유안숙 교육청소년과장은 "이번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은 군민의 평생학습을 위해 힘써 온 군과 군민이 함께 이뤄낸 노력의 결실"이라며 "평생학습도시 부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